

여주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 을 12월 말까지 6개월간 시범 시행

여주시(시장 정기명)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겪으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학업, 취업준비,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다.

을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시행하게 된다.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

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0%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 가구가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격이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부모인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 디지털 체험존, 할머니도 VR 삼매경 스마트폰·키오스크·AR/VR·AI 스피커 체험 가능

곡성군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곡성읍, 삼기면, 고달면을 제외한 8개 면을 순회하며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누구나 최신 정보화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평소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면 체험존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식당이나 상점에서 접하게 되는 키오스크에 대한 이용 방법도 배워볼 수 있다. AR/VR 기기도 갖춰져 있어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도 있고, 가정용 AI 스피커를 통해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1대 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기기 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곡성군에서는 곡성을 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

해 왔다.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체험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읍면 외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면사무소로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곡성군은 지난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7.69%인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면 지역은 젊은 연령층이 더욱 부족해 지역사회의 교육 기회도 적은 편이라 주민들이 최신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상 속에서도 디지털 및 정보화 기기를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하자고 만든 기기들인데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기기들을 익숙해질 때까지 체험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광양,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광양시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31일(1개월)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대상 산지와 자격, 지급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2022년 7월 1일~9월 30일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은 2023년부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임업경영체는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광양시민의 경우 남원시에 소재하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순천시에 소재하는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순천시 조곡동 주민자치회(회장 이노옥)는 지난 9일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제1회 조곡동 비어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곡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페스티벌은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전문 공연무대로 행사장을 가득 채워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임업직불제는 소규모 임가 직접지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육림업 직접지불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해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570) 또는 산림청 전화 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1일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순천시니어클럽(관장 유관식) 소속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 어르신 1천19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직무 이해, 노인 사회참여 의의 및 치매 예방 방법, 노인일자리 안전수칙 및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천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형(공공시설 봉사, 환경정비 등), 사회서비스형(노인·보육시설·공공기관 업무지원 등), 시장형(김치, 누룽지, 두부, 커피 제조 판매), 취업알선형(아파트 경비원 등)에 1천508명 어르신 일 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유관식 관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해 행

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만족도 높은 일자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일류순천을 위해 어르신들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구례,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부과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재산세 감면 혜택

구례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1만2천804건 1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인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진식 기자